

자기분화와 의미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김 완 일[†]

육군사관학교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김완일, 1997)를 통해 기존의 자기분화(Scott의 자기분화) 개념에서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개념을 분리해냈으며, 후속연구(김완일, 김재환, 2000)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고 차원간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김완일과 김재환(2000)의 연구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고 차원간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태도연구(이수원, 1994)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의미차원(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은 자기개념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 단순하게 분화의 두 가지 차원만을 가지고 자기개념과 우울을 설명하는 경우,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의미차원인 평가적 의미차원과 서술적 의미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많이 느끼며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이 우울을 적게 느끼는 원인을 알아본 결과,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우울을 많이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분화의 두 차원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울한 경향이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도록 하는 상담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평가적 의미차원, 서술적 의미차원, 우울

[†] 교신저자 : 김 완 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3호, 육군사관학교
전화 : 02-2197-2284 E-mail : freekwi@freechal.com

자기분화에 관한 연구들(James, 1890; Chartier & Conway, 1984; Gergen, 1971, 1972; Hoelter, 1985; Wiggins & Holzmuller, 1981)을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독특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면들로 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분화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자기상과 역할이 다양할수록 우울을 적게 느낀다는 연구들(Helson, Elliott, & Leigh, 1990; Markus & Nurius, 1986)이 있는 반면에, 자기상과 역할이 다양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들(Thoits, 1983; Donahue, Robins, Roberts, & John, 1993)이 있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분화와 우울과의 관계에서의 이처럼 상반된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해주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Emmons와 King(1989)으로 그들은 Linville(1985)이 자기분화와 감정 반응성이 역상관이 있다고 한 반면에, Larsen과 Diener(1987)는 분화와 감정 반응성이 정상관이 있다고 하여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표상의 영역간의 분화(differentiation across a domain of self-representation)와 그런 영역의 한가지 측면내의 분화(differentiation within one aspect of that domain)사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는 Judd와 Lusk(1984)으로 그들은 신념 복잡성과 태도 극단성과의 관계가 신념들간의 이질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신념들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상관이 낮을 때는 신념구조가 복잡할수록 태도가 중립화되지만 상관이 높을 때는 신념 구조가 복잡할수록 태도가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념들에 기저하는 차원들간의 상관이 높다는 것은 이들 신념들이 동질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태도 대상에 대해 평가를 할 때 동질적인 신념들이 합쳐져서 누적적 효과(additive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에 태도가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상관이 낮다는 것은 이들 신념들이 이질적인 차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태도 대상에 대한 평가에서 이질적인 신념들이 합쳐져서 평균 효과(average effect)가 나타나게 되어 태도가 중립화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연구들은 자기분화를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로 나눌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사점에 기초하여 김완일(1997)은 요인분석과 성격특성 분류기법 결과를 Scott의 공식에 대입하여 “차원내 자기분화”와 “차원간 자기분화” 값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 값(value) 중 차원내 분화값과 기존의 자기분화값인 Scott의 분화값(요인분석의 과정 없이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측정치를 Scott의 공식에 대입하여 나온 값)을 서로 비교한 결과, 이 두 값 사이에는 높은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원내 분화와 Scott의 자기분화는 유사한 개념임을 밝혔다. 차원간 분화값과 Scott의 자기분화값과는 상관이 없어서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을 확인하였다.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값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 역시 별개의 변인임을 밝혔다.

김완일과 김재환(2000)은 Scott의 자기분화를 차원간 분화와 차원내 분화로 나누어서 차원간 분화는 우울을 감소시키나 차원내 분화는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봄으로써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들과 자기분화가 낮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들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김완일과 김재환(2000)의 연구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고 차원간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

을 적게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태도변화 영역에서 조망과 의미차원(평가적 의미 차원과 서술적 의미 차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수원, 김태준, 1988; 이수원, 박광엽, 1989)은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미차원이라는 용어는 Hayakawa(1964)가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보적 내포(informative connotation)와 감정적 내포(affective connotation)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정보적 의미와 감정적 의미의 이중적 의미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하늘’이나 ‘책상’이라는 낱말은 그 자체가 아무런 평가적인 뜻 없이 어떤 사물 또는 사물의 양태를 지칭하고 기술하는 정보적 의미의 용어이다. 이에 반해서 ‘정직’이나 ‘불순’이라는 낱말은 ‘좋다’ 혹은 ‘나쁘다’의 평가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적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Peabody(1967)는 이러한 Hayakawa의 ‘말의 이중성’을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용어에 도입하였다. 그는 인간의 성격특성을 서술하는 단어들에서 서술적 의미차원(dimension of descriptive meaning)과 평가적 의미차원(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술적 의미차원이란 자기나 대상의 여러 가지 성격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지칭하는 인지 차원을 말하고, 평가적 의미차원은 자기나 대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Peabody, 1967; 이수원, 1996 재인용).

성격특성이 두 가지 의미(서술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진 성격특성의 서술적 또는 평가적 의미 중 한쪽 의미만이 강조되어 쓰일 수가 있다. 여기서 성격 특성의 의미가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 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조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수원과 그의 동료들(이수원, 1994; 이수원, 김태준, 1988; 이수원, 박광엽, 1989)은 조망 수용과 조망 확대가 이루어진 사람은 대상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수원(1994)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회정의’와 ‘인도주의’의 양쪽 가치를 갖고 바라보는 다원 가치 집단과 두 가치중 어느 한 쪽 만을 갖고 바라보는 단일 가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다원 가치 집단은 사형제도를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했으나 단일 가치 집단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했다. 이수원과 김태준(1988)은 조망의 확대를 통해 평가 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바뀌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박광엽(1995)은 조망 확대 집단의 경우에 상황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보다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더 잘 변별한 반면에 조망 축소 집단은 서술적 의미보다는 평가적 의미에서 더 잘 변별함을 밝혔다. 즉, 조망이 축소되어 있을 때에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만 조망이 확대되면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망이 확대된 사람은 태도대상이나 자신에 대해서 이질적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원간 분화가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조망이 축소된 사람은 태도대상이나 자신에 대해서 동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원내 분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미의 두 가지 차원과 자기분화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Linville(1982)은 자기상이 분화된 사람은 자신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을 단순하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Linville의 연구결과로부터, 자기상이 분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상과 부정적 자기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보다는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을 지각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차원내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차원간 분화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째,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에서 지각하고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에서 지각하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에서 지각하며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에서 지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차원내 분화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은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이며, 차원간 분화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은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느끼고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반면에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할 것이다.

가설 3: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차원이 다를 것이다. 평가적 의미차원은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 우울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서술적 의미차원은 차원내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 우울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4: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차원이 다를 것이다. 즉, 평가적 의미차원은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 우울의 결정요인이 될 것이나, 서술적 의미차원은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 우울의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방 법

차원내 분화수준과 차원간 분화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신을 지각하는 의미차원이 다르며, 또한 차원내 분화수준과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을 결정하는 의미차원이 다를 것을 가정하고 자기분화 척도, BDI, 의미차원 척도를 실시하여 상관, 중다회귀분석 및 변량분석을 통해 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차원내 분화, 평가적 의미차원, 서술적 의미차원 및 우울의 상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차

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이 상관이 있으나 차원간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은 상관이 없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차원간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이 상관이 있으나 차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은 상관이 없어 결국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고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은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이 상관이 있으나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는 반면에,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은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이 상관이 있으나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어서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과 상관이 있는 의미차원이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해서도 차원내 분화, 평가적 의미차원, 서술적 의미차원 및 우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아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의미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와, 우울과 상관이 있는 의미차원이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다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하여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나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여 결국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우울을 결정하는 의미차원이 다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간에도 우울을 결정하는 의미차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피험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1~4학년 학생 277명을 연

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누락자 1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4명(남학생: 141명, 여학생: 12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도구

자기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

자기개념의 분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ville (1982, 1985, 1987)이 사용한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김완일(1997)의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격특성 분류기법에서 사용할 성격특성 형용사를 알아보기 위해 Linville이 그의 연구에서 쓴 방식대로 사전조사를 통해 14명의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성격을 잘 표현하는 형용사를 모두 기술하도록 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33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통해 얻어진 33개의 형용사를 자기분화 측정의 성격특성 형용사로 사용하였다.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가지고 Linville이 사용했던 성격특성 분류기법을 이용하여 Scott의 자기분화값을 측정하였다. Scott의 절차에 따라 먼저 한 가지 성격특성의 이름 및 그 옆에는 번호가 쓰여 있는 33개의 카드와 10개의 백지 카드 그리고 16칸으로 된 2장의 기록용지를 주고, 자기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황(예: 친구를 만날 때)이나 자신의 여러 모습들(예: 장점)을 분류하게 하였다.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된 자신의 각각의 상황이나 모습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성격을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를 이용하여 각 형용사에 해당하는 카드의 번호를 기록용지에 적도록 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성격 형용사가 자신의 상황이나 모습을 기술해 주는 정도를 번호 뒤의 괄호 안에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때 피험자

표 1. 자기분화 척도에서 사용된 33개의 성격특성 형용사

성격특성 형용사				
고집이 세다(1)	경쟁적이다(2)	게으르다(3)	냉정하다(4)	다정하다(5)
변덕스럽다(6)	보수적이다(7)	상냥하다(8)	성급하다(9)	유머가있다(10)
책임감있다(11)	쾌활하다(12)	편안하다(13)	예의바르다(14)	지적이다(15)
이기적이다(16)	소심하다(17)	솔직하다(18)	이해심이 많다(19)	수줍어한다(20)
단순하다(21)	독선적이다(22)	활동적이다(23)	인내심이 있다(24)	경솔하다(25)
체계적이다(26)	진지하다(27)	성실하다(28)	자신감이 있다(29)	말이 적다(30)
우유부단하다(31)	반항적이다(32)	느긋하다(33)		

들에게 33개의 형용사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형용사를 각기 다른 자기의 여러 측면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시를 하였다. 성격 분류 기법에 의한 각 피험자의 반응기록을 토대로 Linville이 사용한 Scott의 H통계치를 이용하여 Scott의 자기분화 점수를 구하였다.

$$SC(H) = \log_2 n - (\sum \log_2 m_i) / n^1$$

1) H 공식에서 n은 성격특성 형용사의 총 개수(여기서는 33개)이며, ni는 특정 집단조합에 나타난 형용사의 수, 즉 $n = \sum ni$ 이다. 여기서 집단조합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집단 1과 집단 2에 속하지만 다른 집단에 속하지 않는 형용사가 있다고 할 때, 이 형용사는 집단조합 1-2에 속하는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만약 한 개인이 2개의 형용사 집단을 구성했다면 1개의 특정 형용사는 4가지 가능한 집단조합들 중(집단 1, 집단 2, 집단 1-2, 앞의 세 가지 집단에 속하지 않은 조합) 하나의 집단조합에 포함될 것이다.

이 예에서 위 공식의 ni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방식대로 자기개념 분화의 개별 측정치를 구한다.

n1=집단 1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2=집단 2에만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3=집단 1과 집단 2에 동시에 속하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n4=위의 3가지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성격특성 형용사의 개수

자기분화 척도에 제시된 33개의 형용사가 자신의 역할을 기술하는 정도를 평정한 측정치에 대하여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하위 요인을 추출한 다음 각 요인 내에서의 분화정도인 차원내 분화값과 각 요인간에서의 분화정도인 차원간 분화값을 산출하였다.

차원내 분화값과 차원간 분화값을 산출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기분화 척도에서 사용한 33개의 형용사에 대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하고 varimax절차에 따른 직교회전을 통해 eigen value가 1보다 큰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의 부하 값에 의하면 33개의 성격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독립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I: 다정하다, 상냥하다, 유머가 있다, 쾌활하다, 편안하다, 솔직하다, 이해심이 많다.

요인 II: 책임감이 있다, 지적이다, 인내심이 있다. 체계적이다, 진지하다, 성실하다.

요인 III: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반항적이다.

요인 IV: 예의바르다, 소심하다, 수줍어한다, 말이 적다.

요인 V: 변덕스럽다, 경솔하다, 우유부단하다.

요인 VI: 경쟁적이다, 성급하다, 활동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요인 VII: 게으르다, 단순하다, 느긋하다.

요인 VIII: 냉정하다, 보수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먼저 차원내 분화값을 구하기 위하여 상기한 8개 요인 중에 요인 1에 해당하는 형용사만을 가지고 자기의 여러 측면을 분류한 결과를 Scott 등(1979)의 공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으며, 요인 2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 요인 1부터 요인 8까지의 H통계치 값을 구하여서 이 값들의 평균을 차원내 분화값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요인 1에 해당하는 형용사인 다정하다, 상냥하다, 유머가 있다, 쾌활하다, 편안하다, 솔직하다, 이해심 많다 등의 7개 형용사가 ‘혼자 있을 때’ 혹은 ‘아들’ 혹은 ‘나의 장점’ 등의 여러 가지 자기 측면들에 분류된 정도의 H 통계치를 구하고 나머지 7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값을 구하여 총 8개 값의 평균이 차원내 분화값이 되었다.

차원간 분화값의 산출은 8개 요인에 대하여 각 요인에 해당하는 형용사들을 같은 집단으로 묶어서 이에 대한 Scott의 H 통계치를 구하고 이를 차원간 분화값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요인 1에 해당하는 다정하다, 상냥하다 등의 7개 형용사는 모두 1집단으로 묶고 요인 2에 해당하는 책임감 있다, 지적이다 등의 6개 형용사는 모두 2집단으로 묶는 등 8개의 요인 모두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묶어서 8개 각각의 집단들이 자기의 여러 측면에 분류된 결과에 대하여 H 통계치를 산출하여 차원간 분화값의 지표로 삼았다.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Beck과 그의 동료들(Beck, 1967; Beck 등,

1961)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3~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BDI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는데, Beck 등(1961)은 우울증 측정표와 BDI의 양분상관계수 .65와 .67을, Bumberry, Obiver 및 McClure (1978)는 정신과 전문의의 조직적 면담결과와 BDI와의 적률상관계수 .62를 제시했고, Williams, Barlow 및 Agras(1972)는 BDI와 Hamilton(1960)의 우울증 평정척도간의 적률상관계수를 .82로 보고하고 있어 BDI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Beck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이며 반분 신뢰도는 .91이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증상, 정서적 증상, 동기적 증상, 자존심 저하 및 신체적 증상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한다.

의미차원 척도(Meaning Dimension Scale)

이 척도는 외향적 성격특성과 내향적 성격특성이 어떤 준거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활동성 차원과 사려성 차원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신념들로 구성된 척도들을 가지고 의미미분 척도 구성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활동성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사교적인-비사교적인, 적극적-소극적인, 대범한-소심한”의 네 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사려성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 “신중한-경솔한, 조용한-수다스러운, 집중력있는-산만한, 사려깊은-경박한”의 네 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8개의 의미미분 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외향적 성격일 때와 내향적 성격일 때 각각 어떤 특성에 가까운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7점 척도상(-3 : 매우 그렇지 않다, +3 : 매우 그렇다)에서 이루어 졌다. 이 척도의 평정값을 기초로 의미차원 변별값을 산출하였다.

절차

자기분화 척도를 먼저 실시한 다음, Beck의 우울 척도, 의미차원 척도를 실시하였다. 자기분화 척도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분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 장의 카드에 한가지 성격 특성 형용사의 이름과 그 옆에 숫자가 적혀있는 총 33장의 카드와 10장의 백지카드 그리고 16칸으로 된 2장의 기록용지를 피험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당신 자신의 역할이나 모습을 생각할 때 함께 있다고 여겨지는 형용사들의 집단을 만들어 해당 번호를 기록 용지에 적고 맨 윗칸에 역할이나 모습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형용사들이 자신을 기술하는 정도를 1-7 중의 숫자로 기록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많은 집단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형용사가 여러 집단에 포함되는 경우는 백지 카드에 해당 형용사를 적고 집단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료 분석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른 차원내 분화,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의 상관을 알아보았으며,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른 차원간 분화,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또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서술적 의미차원과 평가적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서술적 의미차원과 평가적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원내 분화(2)×서술적 의미차원(2)×평가적 의미차원(2)의 3원 변량분석과, 차원간 분화(2)×서술적 의미차원(2)×평가적 의미차원(2)의 3원 변량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결 과

분화수준에 따른 차원내 분화, 차원간 분화, 의미차원 및 우울의 관계

차원내 분화와 의미차원 및 우울의 관계

차원내 분화,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차원내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간에 정상관($r=.30$)을 보였으나 차원내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과는 상관이 없었으며($r=-.08$), 차원내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차원내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간에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r=-.18$) 차원내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과 상관도 없었다($r=.08$). 이러한 결과는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을 지각하나 차원내 분화수준이 낮을 수록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을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또한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과는 정상관이 있었으나($r=.29$)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었으며($r=-.07$), 차원내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표 2.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의 차원내 분화, 의미차원 및 우울의 상관

		차원내분화	서술적의미	평가적의미	우울
차원내분화 높은집단 (n=136)	차원내분화		-.08	.30**	.21*
	서술적의미			-.06	-.07
	평가적의미				.29**
	우울				
차원내분화 낮은집단 (n=128)	차원내분화		-.18	.08	.23*
	서술적의미			-.06	-.18
	평가적의미				.11
	우울				

* $p < .01$ ** $p < .001$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r = -.18$)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었다($r = .11$).

따라서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이 관계가 있었으나 차원내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과 관계가 없었다.

차원간 분화와 의미차원 및 우울의 관계

차원간 분화,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차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간에 정상관($r = .25$)을 보였으나 차원간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과는 상관이 없었으며($r = -.15$), 차원간 분화

표 3.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의 차원간 분화, 의미차원 및 우울의 상관

		차원간분화	서술적의미	평가적의미	우울
차원간분화 높은집단 (n=135)	차원간분화		.25*	-.15	-.29**
	서술적의미			-.07	-.22*
	평가적의미				.15
	우울				
차원간분화 낮은집단 (n=129)	차원간분화		.08	-.24*	-.28**
	서술적의미			-.09	-.06
	평가적의미				.26*
	우울				

* $p < .01$ ** $p < .001$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차원간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간에 역상관($r=-.24$)을 보였으나 차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과는 상관이 없었다($r=.08$).

이러한 결과는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의 성격을 인식하나 차원간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을 인식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해 준다.

또한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과는 역상관이 있었으나($r=-.22$)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었으며($r=.15$), 차원간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정상관이 있었으나($r=.26$) 서술적 의미차원과 우울은 상관이 없었다($r=-.06$). 따라서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과 관계가 있었으나 차원간 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과 관계가 있었다.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 및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차원내 분화와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설명해주는 정도가 유의미하였으나($\beta=.22$) 서술적 의미차원은 의미가 없었으며($\beta=-.05$), 차원내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beta=-.13$)과 평가적 의미차원($\beta=.07$) 모두 우울을 설명해주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나 차원내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차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서술적 의미차원, 평가적 의미차원 및 우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설명해주는 정도가 유의미하였으나($\beta=-.19$) 평가적 의미차원은 의미가 없었으며($\beta=.07$),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설명해주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나($\beta=-.06$) 평가적 의미차원은 유의미하였다($\beta=.22$).

이와 같은 결과는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나 차원

표 4. 차원내 분화수준,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계수

	서술적 의미		평가적 의미	
	Beta	t	Beta	t
내분화 높은집단	-.05	-.77	.22	3.50*
내분화 낮은집단	-.13	-2.09	.07	1.15

* $p < .001$

표 5. 차원간 분화수준,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중다회귀계수

	서술적 의미		평가적 의미	
	Beta	t	Beta	t
간분화 높은집단	-.19	-3.16*	.07	.98
간분화 낮은집단	-.06	-.90	.22	3.55**

* $p < .01$ ** $p < .001$

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가설 4를 확인해 준다.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 및 의미차원의 우울에 대한 효과

차원내 분화와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원내 분화 (2) × 서술적 의미차원(2) × 평가적 의미차원(2)의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평균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차원내 분화,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에 따른 우울의 평균

	내분화 높은집단		내분화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높은집단	서술적의미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높은집단
평가적의미 낮은집단	10.96(3.75)	9.47(3.39)	8.66(3.20)	8.29(3.17)
평가적의미 높은집단	13.45(3.95)	11.69(3.77)	10.50(3.58)	10.33(3.46)

()안은 표준편차

표 7. 차원내 분화,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에 따른 우울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차원내분화(A)	185.72	1	185.72	4.43*
서술적의미(B)	146.25	1	146.25	3.49
평가적의미(C)	289.40	1	289.40	6.91**
A×B	129.74	1	129.74	3.10
A×C	23.63	1	23.63	.56
B×C	13.11	1	13.11	.31
A×B×C	30.71	1	30.71	.73
오차	10682.72	255	41.89	
전체 변량	11501.27	262	43.90	

* $p < .05$ ** $p < .001$

이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을 보면, 차원내 분화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 255)=4.43, $p < .05$], 평가적 의미차원의 주효과[F(1, 255)=6.91, $p < .001$]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서술적 의미차원의 주효과[F(1, 255)=3.49], 2원 상호작용 효과 및 3원 상호작용 효과[F(1, 255)=.73]는 의미가 없었다.

이 결과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M=11.39)은 낮은 사람(M=9.45)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끼며, 자신의 성격을 평가적 의미차원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M=11.49)은 평가적 의미차원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M=9.35)보다 우울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차원내 분화와 평가적 의미차원 및 서술적 의

미차원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나 차원내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차원간 분화와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차원간 분화(2) × 서술적 의미차원(2) × 평가적 의미차원(2)의 3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평균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이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8. 차원간 분화,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에 따른 우울의 평균

	간분화 높은집단		간분화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높은집단	서술적의미 낮은집단	서술적의미 높은집단
평가적의미 낮은집단	11.30(3.67)	9.08(3.51)	10.59(3.47)	10.74(3.34)
평가적의미 높은집단	12.66(3.58)	8.57(3.44)	14.96(3.70)	13.18(3.49)

()안은 표준편차

표 9. 차원간 분화, 서술적 의미 및 평가적 의미에 따른 우울의 변량분석 요약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차원간 분화(A)	377.25	1	377.25	8.93**
서술적 의미(B)	167.91	1	167.91	3.98*
평가적 의미(C)	246.98	1	246.98	5.85*
A×B	35.06	1	35.06	.83
A×C	11.49	1	11.49	.27
B×C	7.56	1	7.56	.18
A×B×C	193.76	1	193.76	4.59*
오차	10771.46	255	42.24	
전체 변량	11811.47	262	45.08	

* $p < .05$ ** $p < .001$

표 9를 보면, 차원간 분화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 255)=8.93, p<.001$), 서술적 의미차원의 주효과($F(1, 255)=3.98, p<.05$)와 평가적 의미차원의 주효과($F(1, 255)=5.85, p<.05$)도 의미가 있었으나, 2원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차원간 분화수준과 서술적 의미차원 및 평가적 의미차원의 3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F(1, 255)=4.59, p<.05$).

차원간 분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과 관계없이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M=8.83$)이 낮은 사람($M=11.98$)보다 우울을 적게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집단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과 관계없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는 정도가 낮은 사람($M=10.67$)이 높은 사람($M=14.07$)보다 우울을 적게 느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고 차원간 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여 가설 4를 확인해 주고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차원간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적게 느끼고 차원내 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많이 느끼는 결과를 가져오는 기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차원간 분화와 우울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 의미차원을 설정하고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주고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주어 우울을 결정하는 의미차원이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

울에 영향을 주고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주어 우울 결정요인이 차원내 분화수준에 따라서도 다른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했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태도 변화에 대한 몇몇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수원(1995)은 조망이 축소되어 있으면 태도 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만 조망이 확대되면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강재연과 이수원(1996)은 역할 놀이를 통한 조망의 확대가 의미차원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에서의 조망의 확대와 본 연구에서의 분화의 두 차원은 대상을 보는 준거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같으나 태도변화의 연구에서 조망의 확대는 태도 대상을 보는 준거가 다양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 차원간 분화는 자기를 보는 준거가 다양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했으나,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자신을 지각하며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한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의 경우 차원내 분화와 서술적 의미차원과의 상관($r=-.18$)과 설명량($\beta=.13$)이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이고 있다. 차원내 분화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피험자 수(135명)가 충분하지 않았는데 추후연구에서는 충분히 많은 피험자들에게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의미

차원이 달라진다는 앞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제가 다를 수 있다.

셋째는 성격의 의미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차원간 분화수준에 따라 달라서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했으나 차원간 분화가 낮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였으며,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했으나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은 기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의미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느끼는 원인이 자신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이며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끼는 원인이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수원 등(1987)의 연구에서는 평가적 의미차원과 서술적 의미차원이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 자극을 판단할 때 감정이 많이 개입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분화된 사람은 인지적으로 반응하여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고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적 의미차원과 서술적 의미차원이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지적으로 반응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 적절한 대처를 하므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느끼나 차원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

하므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스트레스와 우울을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조망이 확대되면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이수원, 장성수, 김재환, 1987),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준거가 확대된 사람은 축소된 사람보다 감정적 반응을 적게 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김택호, 이수원, 1991)는 연구들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결정하는 의미차원이 평가적 의미였는데, 이는 동질적으로 다양한 자기상이 누적되어 좋거나 나쁘다의 평가적 의미차원으로 자신을 지각하게 되어 감정적으로 반응해 우울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 본 연구자의 가설대로 평가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나,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본 연구자의 가설과는 다르게 서술적 의미차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동질적인 자기상으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신을 동질적인 자기상으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차원내 분화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가 자기개념과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영역에 제공하는 이론적 시사점과 상담장면에 갖는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과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의 우울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의미차원이 다를 수 있다. 즉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결정하는 요인이 서술적 의미차원인 반면에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결정하는 요인이 평가적 의미차원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적게

느끼고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우울을 많이 느끼는 원인에 대해 의미차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고 차원내 분화가 높은 사람은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지각하기 때문임을 보였다.

차원간 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울을 적게 느꼈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의 상담에서 자기상을 이질적으로 다양하게 가지게 함은 물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지각을 좋다-나쁘다의 평가적 의미보다는 서술적 의미로 보게 해서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인지적인 반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고찰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측정의 문제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문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분화 및 의미차원 등을 측정할 때 실제 상황에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BDI 등 대부분의 척도가 자기보고식이었는데 이러한 척도들이 어느 정도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이기는 하지만 피험자의 마음가짐이나 사회적 선호도의 고려 등에 의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의미차원과 평가적 의미차원값을 구할 때 요인분석을 한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외향성, 내향성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점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둘째, 차원내 분화와 차원간 분화를 측정할 때 자기상을 개인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역할의 한정된 측면에서만 알아보았는데, 자기상의 측면을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분화의 정도를 알아보는 추후연구를 실시하여 자기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를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인데, 앞으로의 연구에서 자기분화 척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높이고, 상담 실시전에 우울한 경향을 가진 내담자의 자기분화의 정도를 알아보아 내담자를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활용하며, 우울한 사람들을 치료한 후에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를 포함하여 두 집단에서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강재연, 이수원 (1996). 역할놀이가 태도의 구조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85-97.
- 김완일 (1997). 자기평가와 자기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완일, 김재환 (2000). 자기평가와 자기분화의 우울에 대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83-107.
- 김택호, 이수원 (1991). 인지적 면역훈련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9, 127-185.
- 박광엽 (1995). 조직갈등에서 조망확대의 효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수원 (1994). 태도의 구조변화와 의식개혁.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엄 논문집. 한국심리학회.

- 이수원 (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도, 개인내 태도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4(1), 1-31.
- 이수원 (1996). 조직갈등해결의 한 모형: 중용. 정양은 편, 한국의 조직문화. 오윤재단.
- 이수원, 장성수, 김재환 (1987). 태도의 차원구조와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5(1), 48-58.
- 이수원, 김태준 (1988). 조망과 태도 : 태도의 변형생성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7(2), 75-95.
- 이수원, 박광엽 (1989). 조망의 확대와 평가의 표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33-49.
- 이수원, 박영석 (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 연구*, 4(1), 155-181.
- 이수원, 신현숙 (1986). 태도의 차원구조: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6(3), 181-192.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umberry, W., Obiver, J. M., & McClure, J. N. (1978). Validat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a University population using psychiatric estimate as a criter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50-155.
- Chartier, B. M., & Conway, J. B. (1984). *Psychometric comparison of the Leary and Wiggins Interpersonal Scale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Donahue, E. M., Robins, R. W., Roberts, B. W., & John, O. P. (1993). The divided self: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al roles on self-concept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34-846.
- Emmons, R. A., & King, L. A. (1989). Personal striving differentiation and affective re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78-484.
- Gergen, K. H. (1971). *The concept of self*. New York: Holt.
- Gergen, K. J. (1972). The healthy, happy human wears many masks. *Psychology Today*, 33, 64-66.
- Hamilton, M. (1960). A rating scale for depressio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23, 56-62.
- Hayakawa, S. I. (1964).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 Helson, R., Elliott, T., & Leigh, J. (1990). Number and quality of roles: A longitudinal personality 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83-101.
- Hoelter, G. W. (1985). The structure of self-concept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392-1407.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Y: Holt.
- Judd, C. M., & Lusk, C. M. (1984). Knowledge structure and evaluative judgements: Effect of structural variables on judgemental extre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193-1207.
- La 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1-39.
- Linville, P. W. (1982). The complexity-extremity effect and age-base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93-211.
- Lin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Peabody, D. (1967). Trait inference: Evaluative and descriptive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7, (Whole No. 644).
- Scott, W. A., Osgood, D. W., & Peterson, C. (1979). *Cognitive structur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Washington, D. C.: V. H. Winston & Sons.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Wiggins, J. S., & Holzmuller, A. (1981). Further evidence on androgyny and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67-80.
- Williams, J. G., Barlow, D. H., & Agras, W. S. (1972). Behavioral measurement of severe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7, 330-333.

원 고 접 수 일 : 2003.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11. 21

게 재 결 정 일 : 2003. 11. 28

K C I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Meaning Dimension on Depression

Wan-Il Kim

Korea Military Academ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e of the following hypotheses: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is, the high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is. The higher the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the lower the degree of experiencing depression is. The hypothe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f a person's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is high, he or she tends to perceive themselves with a 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 if a person's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high, he or she tends to perceive themselves with a dimension of descriptive meaning. A new questionnaire entitled "Beck Depression Inventory," "Self Differentiation Scale", "Meaning Dimension Scale"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valuative meaning and descriptive meaning to the hypothesis that if a person's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is high, he or she tends to perceive themselves with a 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 if a person's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is high, he or she tends to perceive themselves with a dimension of descriptive meaning. This hypothesis was partially confirmed. As a result, a person with higher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tended to perceive himself/herself with a dimension of descriptive meaning. However, a person with higher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tended to perceive himself/herself with a 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 These results have many implications not only for further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depression but also for practical utilities, e. g. counselling psychology.

Key Words : *differentiation within dimension, differentiation across dimension, dimension of evaluative meaning, dimension of descriptive meaning, depression*